

## 제15차 아시아 산업보건학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회장  
윤 임 중

1997년 8월31일 부터 9월 3일 까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프르에서는 제15차 아시아 산업보건학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부산대의대 김돈균교수, 동아대의대 김준연교수를 포함하여 모두 21명이 참석하였고 이중 네사람이 부인을 동반하였다.

본 아시아 산업보건학회의 한국측 대표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이승환회장 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어서 8월31일 오후 5시 부터 6시 까지의 평의원회, 9월1일의 협력회의(Joint Meeting) 그리고 9월3일의 합동회의에는 본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사전에 통보되었다. 항공편 때문에 우리 일행은 부득이 8월31일 오후 8시20분에 출발하는 말레이시아 항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목적지인 쿠알라룸프르에 도착한 것이 밤 1시반이 넘어서였기 때문에 31일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숙소에 도착하여 방을 배당받고 짐을 푼 것이 새벽 3시가 훨씬 넘어서 였다. 잠시간을 놓쳐버린 나는 눈을 붙이지 못한채 학회장으로 향하였다. 학회가 열리는 르네상스 쿠알라룸프르호텔은 일행이 묵고있는 뉴월드호텔과 같은 건물이었다. 후에 안일이지만 한건물에 두이름이 붙은 것은 주인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9시부터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본 학회 회장인 싱(Singh)의 인사말, 보건장관 주이멩(Jui Meng)

의 축사 그리고 의사협회장 룸(Lum)의 격려사가 있는 후 본회가 시작되었다. 15개국에서 구연 77연제, 포스터 26연제 등 모두 103연제가 발표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구연 4연제, 포스타 2연제를 발표하였다. 본 학회 참가자는 외국인 250명, 내국인(말레이시아인) 250명 모두 500명 정도였다. 연제내용은 대부분 보건관리 분야였고 실험논문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아시아 산업보건학회 회원국들의 대부분이 산업중독에 관한 실험연구를 하기에는 인력과 시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나름대로 추측되었다.

9월1일의 협력회의는 12시부터 2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15개국의 대표인 평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의 회의내용은 전날 평의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회칙을 개정하는 일이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2000년에는 싱가포르에서 ICOH(국제산업보건학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제16차 아시아 산업보건학회는 1999년 필리핀에서 개최하고 회장은 Dr. Reverente
2. 국가회비는 현재의 75\$에서 150\$로 인상
3. 국가와 개인회비는 때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
4. 뉴수레터 발간
5. 초록검토 후 우수한 논문에 상패수여
6. 연구위원회를 비롯한 수련교육, 산업보건서비스, 농촌산업보건, 인간공학, 산업위생 독

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7. 회칙 제1장(총칙)을 삭제하고 회원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 본학회의 목적을 산업보건 활동의 증진을 통하여 아시아,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어 건강, 안전, 복지를 개선하고 산업보건에 있어 수련교육 연구를 증진시키며 산업보건분야에 있어서 개인과 단체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본래는 2시간 예정이었으나 4시간 반이 소요되어 9월1일 오후에 있었던 분과학회는 참석할 기회를 잃었다. 아시아 산업보건학회의 회원국들은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권 나라들이다. 과거야 어찌되었던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국어 이상으로 영어가 자유롭다. 특히 회칙개정을 토의하는 시간에 그들은 자유자재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비하여 필자를 비롯한 일본, 중국대표의 입은 무거울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가 기왕에 어쩔수 없이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었다면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 지루한 시간이었다.

닥터 푼은 싱가포르에서 산업보건을 하던 사람으로 현재는 호주에 이민하였고 아시아 산업보건학회에서는 매우 비중이 큰 사람에 속한다. 9월2일 분과학회에서 그가 발표하는 연제를 청취할 기회를 가졌다. 호주 대형병원 직원중 글루타알데하이드(Glutaraldehyde) 폭로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물질은 방사선과 종양학 그리고 내시경 등에서 사용되는데 이 물질에 폭로되는 58명(초록에는 9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는데 그중 20%가 Glutaraldehyde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표는 달랑 한 개뿐이라서 단 몇분이면 충분할 내용을 20여분이나 끌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

도 말솜씨(영어) 때문이었던 것 같다. 만일 우리나라의 산업의학회사 산업의학 관련 모임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더라면 그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모멸을 당했을 것이다. 더욱이 국제학회에서 연구라 할수도 없는 내용을 발표하는 그의 배짱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필자만이, 또 이번에 비로소 느낀바는 아니리라. 국제회의에서 언어는 영어이다. 말이 짧으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 나를 나대로 평가 받을 수 없다. 학회를 마친날 저녁 동아대학 김준연교수와 자리를 같이하고 긴시간 깊은 시름에 빠졌다. 산업의학을 전공하는 우리나라 젊은 후배들에게 영어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과감한 재정적 지원인데 그나 나나 그런 힘이 있을 리 없다. 고민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재떨이에 꿈초만 수북히 쌓였다.

“젊은 후배들이여!

그리고 외국인과 맞서야할 기회를 가질 이 나라 모든 젊은이들이여!

우리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여 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그날이 오기전까지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심오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어를 말할 수 없으면 그것은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기를쓰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귀에 쏙는 레시버는 음악이 아니고 영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서 혀가 닳도록 토론하고 옹고 그름을 가릴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남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이어가는 후손들입니다.

이 나라를 이어갈 젊은이에게 힘을 주고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과감하여야 하겠습니까.”